봉선사, 세 스님 모시고 새 원력

10월 9일, 1057주년 개산대재서
회주·수좌·강주 추대식 봉행


봉선사는 10월 9일 회주 일면 스님, 수좌 의정 스님, 강주 정원 스님을 추대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개산 1057주년을 맞아 선대 조사들의 원력을 기리고 문도 화합과 교구 발전을 위한 원력을 다졌다. 특히 두산 일면 대종사를 회주, 월암 의정 대종사를 수좌, 취봉 정원 대종사를 강주로 각각 추대하며 교구본찰의 수행의 교육 전통을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봉선사는 10월 9일 큰법당 특설무대에서 '개산 1057주년 개산대재 및 추대식'을 봉행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수많은 큰스님들의 수행과 원력, 봉선사를 아끼고 지켜온 사부대중의 정성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며 "봉선사의 1057년 역사가 앞으로도 천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법등의 역사가 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실 밀운 대종사는 "부처님 말씀대로 계를 잘 지켜야 이뤄지는 것이지 법당 와서 절 많이 한다고 이뤄지는게 아니다"라며 "평상시 계를 잘 지키면 거기서 힘이 나와서 모든 게 원만해진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추대식에서는 주지 호산 스님과 입승 자현 스님, 학감 해진 스님이 각각 세 스님에게 가사를 봉정했다. 사부대중은 삼배의 예로 추대를 축하했다.

회주로 추대된 일면 스님은 "봉선사는 1000년이 넘는 역사와 오랜 전통을 지닌 사찰로, 앞으로 주지 호산 스님과 함께 봉선사를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좌로 추대된 의정 스님은 "전국의 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주로 추대된 정원 스님은 "교육 분야에서 쌓은 경험으로 후학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화엄경을 바탕으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이 광동학원 발전을 위해 각각 1억원을 쾌척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법주사 "마음 등불 이어가자"

10월 9일, 1474주년 개산대재
국화향연·사찰음식 '백미백락'도



10월 9일 국화가 만발한 법주사에서 열린 1474주년 개산대재.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10월 9일 팔상전 앞 특설무대에서 1474주년 개산대재와 가을국화향연을 열고,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을 일상 속 자비와 화합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개산조 의신 조사와 중창조 진표율사, 중흥조 벽암 대선사의 원력을 기리는 법회에 사찰음식과 세계 음식, 국화와 음악을 더해 불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자리가 이뤄졌다.

조실 지명 대종사는 법어에서 "속과 법의 불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법주사를 창건하고 중창하며 법등을 계속 전승해 오신 역대 조사 스님들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설했다.

주지 정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인연의 겹들이 이 순간을 이루듯, 국화 또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햇살을 인내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법주사 도량에 퍼진 국화 향기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향기로운 자비의 마음이 가득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회주 도공 대종사는 축사에서 역대 조사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그 발자취가 깊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며 "역대 조사의 법맥이 계승되도록 도량을 수호하고 불퇴전의 신심으로 수행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용석 법주사 신도회장은 "신도회도 역대 조사 스님들의 은혜를 되새기며 도량을 외호하고, 이웃과 자비를 나누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백미백락'에서는 수정암·용화사·평화사와 법주사 신도회가 준비한 사찰음식, 보은군 가족센터의 협조로 마련한 베트남·태국·중국·일본 음식이 선보였다. '산사의 미락'에서는 개심사의 사찰음식을 전시·시식하고 각 말사는 먹거리와 불교용품 장터를 마련해 국화향연에 함께했다.

오후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음악회'가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무위사, 600년 자비 원력 '수륙대재'

10월 9~10일, 제9회 수륙대재
마당극으로 세종 애민정신 조명



무위사는 10월 9~10일 수륙대재를 봉행하고 사부대중의 평안을 발원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모든 생명의 평안을 발원했던 국행수륙재의 숭고한 뜻이 600년 세월을 넘어 강진 월출산 무위사에서 이어졌다.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 스님)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적광전 일원에서 '2026년 강진 월출산 무위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수륙대재는 9일 괘불 이운을 시작으로 영가를 도량으로 맞이하는 시련과 대령, 영가의 번뇌를 씻어주는 관욕에 이어 상단·소청상위 의식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금강경 독송과 중단·소청중위, 하단·소청하위 의식이 봉행됐다. 마지막으로 봉송과 회향을 통해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사부대중의 평안을 발원하며 이틀간의 의식을 마무리했다. 의식과 작법은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가 맡아 전통 불교의례의 장엄함을 더했다.

원로의원 보선 스님은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을 새겨 전쟁과 갈등을 멈추고, 과거에 떠난 이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미래의 자손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은 "무위사 수륙대재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지정하신 국행수륙재의 숭고한 뜻을 이어오는 불교의례"라며 "오늘의 간절한 기도가 모든 영가의 고통을 씻고 평안에 이르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수륙대재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국악 역사마당극 '천강에 비친 달'이 선보였다.

세종대왕이 전쟁과 권력 다툼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발원했던 역사적 배경을 무위사 수륙대재와 연결해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녕사서 펼쳐진 사찰음식 한마당

10월 9일, 제16회 사찰음식대향연
경연대회·비빔밥 퍼포먼스 '눈길'



봉녕사는 10월 9일 제16회 사찰음식대향연을 열고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새겼다.

사찰음식을 만들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10월 9일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제16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을 개최했다.

'사찰음식 경연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정성 어린 솜씨가 담긴 요리가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맛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라는 주제에 맞춰 사찰음식 고유의 정신을 담아내는 데 정성을 다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이 갖고 있는 수행 정신을 잘 표현한 요리에 점수를 높게 주려고 했다"며 진상 스님과 함께 출품작들을 하나하나 시식하며 평가를 진행했다.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펼쳐진 '비빔밥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지역 대표 인사들이 시민들과 비빔밥을 함께 만들며 화합의 장을 이끌었다. 시민들은 함께 만든 비빔밥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장 큰 기쁨으로 꼽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탁발순례를 이어갔다. 하심(下心)의 모습을 직접 마주한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손 모아 행렬에 함께하며 부처님의 공양 정신을 몸소 느꼈다. 이외에도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다선일미 차명상', '소리선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사찰음식은 지구와 우주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담긴 '오래된 미래'의 음식"이라며 "청명한 가을날, 천 년 역사를 품은 봉녕사 도량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차,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을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